

‘전설’ 박진영&비 댄스 듀오…벌써 콩닥

뮤비 촬영 끝…신곡 공개 초읽기
춤꾼 카이도 8년 만에 솔로 앨범
보아·청아 새 앨범 안무도 기대

‘춤꾼’들이 몰려온다.

독보적인 춤 실력으로 대중의 눈을 사로잡은 댄스가수들이 저마다 매력으로 중무장하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주인공은 박진영과 비, 엑소의 카이 그리고 보아와 청하로, 이들이 펼치는 남녀 성대 결도 볼 만한 전망이다. 이들은 뛰어난 퍼포먼스로 각 세대를 대표하며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모은다.

팬들의 호기심이 가장 집중되는 무대는 솔로 댄스가수로, 이른바 ‘레전드’의 타이틀을 얻은 가수 박진영과 비이다. 이들이 의투합해 ‘댄스 듀오’로 나선다.

앞서 비가 역대급 아티스트와 듀오를 결성해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전설의 만남’을 넘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두 사람의 신곡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댄스가수 1세대’ 박진영(오른쪽)과 ‘2세대’ 비가 손잡고 신곡을 내놓는다. 절친한 선후배이자 사제 지간이기도 한 두 사람은 춤 실력만큼은 가요계 ‘전설’로 꼽힌다. 사진제공 | 시즌비시즌

다. 두 사람은 절친한 선후배 사이를 떠나 과거 비가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을 때부터 ‘사제지간’을 넘어 춤 실력으로 자웅을 겨뤘다.

박진영이 댄스가수의 ‘1세대’, 비가 ‘2세대’를 상징한다면 이들의 뒤를 잇는 후배로는 단연 엑소의 카이가 꼽힌다. 카이는 30일 데뷔 8년 만에 처음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팬들 앞에 선다. 이날 발

표하는 첫 번째 미니음반 ‘필름:카이’는 그만의 유려한 춤 솜씨가 돋보일 만한 타이틀곡 ‘음’을 비롯해 총 6곡을 담았다.

2002년 엑소의 메인 댄서로 데뷔한 카이는 뛰어난 춤 실력과 카리스마 강한 무대로 사랑받아왔다. ‘SM 어벤저스’라 불리는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에서도 메인 댄서를 맡고 있다.

이처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남성 솔로가수들 사이에서 보아와 청하도 다시 돌아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의 별’이라 불리는 가수 보아는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며 12월1일 정규 10집 ‘베터’를 선보인다. 2000년 14세의 나이로 데뷔한 보아는 한국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오르고,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에도 진입한 ‘최초의 케이팝 스타’로 불린다. 동명의 타이틀곡 ‘베터’를 포함해 총 11곡을 수록한 이번 앨범을 통해 보아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춤 실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전망이다.

역시 아담한 체구로 뿜어내는 카리스마와 퍼포먼스로 무대를 사로잡아온 청하의 첫 번째 정규 앨범도 기대할 만하다. 다음달 10일 정규 1집 ‘커렌시아’를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수록곡 일부를 잇따라 공개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청량한 음색과 라이브 무대에서 화려한 춤까지 선보여온 청하는 ‘플러코스터’, ‘러브 유’, ‘벌써 12시’, ‘스내핑’ 등을 잇는 히트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미친 연기” “진심 무섭다” 넷플릭스 ‘콜’ 인기몰이

한국·대만 1위 이어 중남미 10위권

연기자 박신혜와 전종서가 주연한 영화 ‘콜’이 공개 초반부터 시선몰이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부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선보이고 있는 ‘콜’이 글로벌 인기 차트에 오르며 인기를 예고하고 있다.

29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 집계에 따르면 ‘콜’은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차트에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대만 1위를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페루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에서 10위권에 올랐다. 공개 이틀 만에 이끌어낸 열기라는 점에서 향후 더욱 달아올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권 이용자들의 관심은 주연 박신혜가 그동안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해온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화 자체의 힘으로도 평가받는다.

‘콜’은 2020년 현재와 1999년 11월의 시간을 살아가는 두 여자가 무선전화기를 통해 교감하는 사이 상상하지 못한 폭력에 휘말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개성 강한 판타지 스릴러물로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 캐릭터로는 보기 드문 사이코패스로서 광기와 폭력성을 드러내며 강렬한 연기를 펼친 전종서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미친 연기력” “진심 무섭다”는 등 전종서의 연기에 대한 누리꾼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은 “넷플릭스로도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영화관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tvN ‘산후조리원’서 처음으로 연기 도전한 성우 최수민

일흔 셋 황혼의 도전 아들 차태현 응원 덕



성우 최수민은 애니메이션 ‘영심이’와 ‘달려라 하니’의 나래리 역으로 시청자 귀에 친숙하다. 사진은 카메라 앞에서 첫 연기를 펼친 드라마 ‘산후조리원’ 속 모습.

“차태현 엄마요? 이제 ‘신인 연기자’로 불러주세요. 호호호!”

성우 겸 연기자 최수민(73)의 씩스러움 가득한 웃음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렸다. 목소리는 최근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 속 베테랑 간호사 안희남 그 자체였다. 종영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주변에서 온통 칭찬만 해주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전화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 말할 정도로 드라마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감격’에는 이유가 있다. 1969년 TBC 공채 성우로 데뷔해 51년 동안 목소리 연기를 펼치며 아들 차태현을 인기 배우로 길러냈지만, 정작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 적은 없었다. 그러다 올해 초 한국성우협회가 보내온 “60대 이상에 아역 목소리 연기한 분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연다”는 문자메시지가 변화의 시작이 됐다.

카메라 켜지면 머리 하얗게 NG 아들이 ‘화면에만 충실해’ 조연 칭찬만 해주니 하늘을 나는 기분
후배 성우들 다양한 도전했으면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나이 들어 대사도 못 외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캐스팅디렉터가 ‘한 번만 뵙자’며 전화를 해왔어요. 고민이 돼 (차)태현이에게 물었더니 대변에 그러데요. ‘왜 안 해요? 꼭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난 당신이 재능을 펼치는 게 정말로 좋아요’라고 말이지요.”

차태현과 남편인 차재완 전 KBS 음향감독의 전폭적인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심했다. 물론 첫 연기가기에 힘든 순간도 있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바람에 NG도 몇 번이나 났다.

“현장에서 다른 출연자들의 연기나 연출자인 박수원 PD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감을 잡으려 노력했어요. ‘대선배’인 태현이도 많은 도움이 됐죠. 제게 ‘엄마, 실수는 당연한 거야. NG를 두려워하지 말고, 화면에만 충실해요’라고 조언해주었어요. 뭔가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차 이야기에 빠져드니까 어느 순간엔 카메라 앞에 ‘나’로 서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은 ‘연기의 재미’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좋은 캐릭터로 불러준다면 언제든 나가겠다”며 수줍게 웃었다. 70대의 나이로 새 도전에 나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후배 성우들이 저의 도전을 다양한 길로 가는 마중물로 여겨줬으면 해요. 그런 마음으로 후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응원해준 걸 잘 알거든요. 그리고 ‘황혼의 도전’을 망설이는 또래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 나이 때문에 가만히 있진 말자구요. 저도 했잖아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 새 미니음반 ‘BE’ 영국 오피셜차트 2위

그들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음반 ‘BE’가 영국 오피셜 차트에 2위로 진입했다. 29일(한국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BE’는 이와 함께 앨범 다운로드 차트와 아이리시 앨범 차트 톱 5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앨범 차트 업데이트 톱 100 2위, 앨범 세일즈 차트 톱 100 3위 등 모두 7개 부문 앨범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오피셜 싱글 차트의 톱100 안에 새 음반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과 수록곡 ‘블루&그레이’, ‘다이너마이트’ 등 모두 세 곡을 올리기도 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팝 음악의 인기 순위를 나타내는 양대 차트로 꼽힌다.

김정렬,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8월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가수들 잇따라 콘서트 연기

가수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진단검사를 받거나 공연을 연기하고 있다. 29일 그룹 모모랜드의 낸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생각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최종 음성 판정으로 안도한 그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룹 펜타곤의 여원 등 모든 멤버가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9일 오후 열려던 온라인 콘서트를 연기했다. 앞서 한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그룹 빅톤은 첫 정규앨범의 12월1일 발매 일정을 미뤘다.

개그맨 오인택, 9살 연하 연인과 웨딩마치



사진제공 | MBC

개그맨 오인택이 29일 결혼했다. 그는 이날 9살 연하의 연인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처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사회는 동료인 개그맨 김기욱, 주례는 윤택이 맡았다. 결혼식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방역지침 안에서 진행됐다. 오

인택은 이에 개인 유튜브 계정인 ‘오TV’를 통해 결혼식

을 생중계했다. 오인택은 2008년 SBS ‘웃음을 찾는 사

람들’에서 개그맨 이용진, 이진호, 양세찬과 함께 ‘옹이

아버지’에 출연해 인기를 얻으며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예술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획전이 열린다. 개관 20주년을 맞는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가 12월2일부터 6일까지 펼치는 ‘2020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이다. 모두 4개 섹션에서 12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아네트 베닝 주연 ‘호프 갭’을 비롯해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썸머 85’, 쥘리에트 비노슈 주연의 ‘하루 투 비 어 곳 와이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장 피에르-뤽 다르텐 형제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코끼리와 나비’ 등이 관객을 만난다. 문은주 감독의 ‘아이 엠 우먼’ 등 음악영화도 선보인다.